

한곳 3그루 모두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

지정번호	영주-11-28-8	경북 영주시 순흥면
지정년도	1982	배점리 184
관리기관	영주	36° 55' 56.83" N
수령	400년	128° 33' 20.96" E
수고	20m	
흉고둘레	6m	

마을의 정자목인 보호수(영주-11-28-8) 느티나무는 3그루가 마을 어귀의 낮은 동산에 삼각형의 꼭짓점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다. 위치하는 곳은 동산이라기보다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의 갈림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 느티나무 3그루는 모두 각각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의 정자는 느티나무 3그루가 이룬 정자라는 뜻에서 '삼괴정(三槐亭)'이라 부른다. 석삼(石三)과 느티나무 괴(槐)자를 쓰는 삼괴정은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0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600cm, 밑동둘레는 605cm 정도이다. 원줄기는 10m 높이에서 가지가 3갈래로 갈라져 있다. 원줄기 밑쪽은 외과치료를 하고 충전재로 채우거나 바른 부분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여러 편이지만 보신하는 뱀과 관련한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 영주시 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영주시사(2)에 삼괴정의 구렁이가 수록되어 있다. 제보자의 이름도 있다. 어느 날 군인들이 한 느티나무에서 다른 느티나무로 건너가는 구렁이에게 총을 쏘았다. 그때 한 마리는 떨어져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어디로 도망쳐 갔다. 동네 어느 주민(제보자)의 아버지는 당시에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구렁이를 먹고 기운을 차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죽은 구렁이를 고아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는지 결국 돌아갔다. 영물의 구렁이를 먹었으나 약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옛날에는 비 오는 날의 예보처럼 비가 오려고 하면 어디선가 구렁이가 출몰하였다. 구렁이 한 쌍이 우우하고 소리를 내며 울면 정말로 이튿날 비가 내렸다. 이곳의 내력을 듣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항 선생이 직접 심었다는 것이었다.

